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1/13~2/3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는 우리 학교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들은 대부분 깨끗하며, 학교 내에 스타벅스, 서브웨이, 팀홀튼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많다. 교통은 버스 정류장과 매우 가깝고, 지하철역도 한 정거장 차이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수업	전반적인 수업은 캐나다의 문화, 지식과 관련된 영어수업으로, 조끼리 토의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분위기다. 겨울 프로그램은 분반하지 않고, 순천향대학교 학생들끼리 한 반으로 배정된다. 따라서 강사도 한명이며, 따라서 단점은 한국인끼리 한 반을 쓰다보니까 한국어 사용이 잦다. 과제는 거의 매일 있는 편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과제이다.
Activity	-벤쿠버 아쿠아리움, 벤쿠버 뮤지엄, 서스펜션 브릿지, 컬링, 랑가라 학생들과 만남, 등이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액티비티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브릿지에 갔다 온 것이다. 또한 이 브릿지 입장료가 비싸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는 모든 활동을 너무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름프로그램에 온 친구가 브릿지 활동이 재밌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

	으나, 생각보다 특별한 건 없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벤쿠버 날씨는 화창한 날보다 흐린 날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벤쿠버 갈 때는 운 좋게 비오는 날이 적었다.
안전	내 생각에 벤쿠버는 한국보다 안전한 도시이다. 술도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하며, 마트나 편의점에 판매하지 않는다. 노숙자들도 다운타운에 많이 볼 수 있으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행동은 없어 길거리를 다닐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v) 외부 숙소() 기타() 나는 전반적으로 홈스테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대체적인 이유는 음식 때문이다. 음식은 밑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홈스테이 규제는 대부분 없었으며 샤워시간도 자유로웠고, 미드에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불이 아닌 담요로 덮고 자서 새벽에는 좀 추웠다. 나중에 요구를 해서 추가 담요를 받았지만, 그래도 추웠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v) 외부식당(v) 기타() 진짜.. 음식은 정말 최악이었다.. 파스타를 해주는 날은 그냥 사먹는 날이었다. 1주가 지나고 2주차 접어들 때 쯤, 용기내서 파스타 대신 빵을 점심으로 싸달라고 요청해서 그전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거의 사먹었다. 쌀도 필리핀 쌀이었는데, 사이드 디쉬만 먹다가 홈스테이 엄마가 쌀 안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한국쌀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한국쌀을 먹게 되었다. 내가 느낀 것은 좋든 싫든 3주동안 생활해야할 곳이기에 때문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초반에 얘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통	학교에서 제일 먼 곳으로 배치되서 집에서 통학하기 쉽진 않았다. 아침에는 버스가 자주 오는 편이지만, 출근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버스를 여러 대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반면에 저녁에는 버스 배차간격이 들쭉날쭉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100만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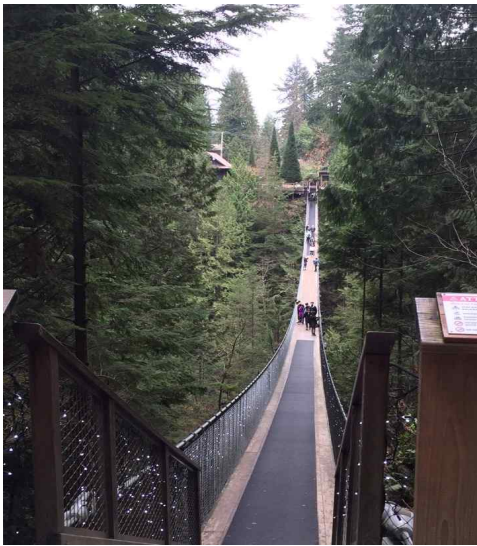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홈스테이 보고서를 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홈스테이 배정될 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운인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했던 것은 한국 컵라면 싸온 것이다. 홈스테이 음식이 입에 안 맞았는데 그나마 내가 가져온 컵라면으로 버틴 것 같다!! 물론 운 좋게 홈스테이 가족이 음식을 잘 한다면 필요 없을 것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잃어버려 혼자서 여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또한 그 때문에 길도 자주 잃어버렸다. 그 이유로는 낮에 보는 풍경과 저녁에 보는 풍경이 너무 다르며, 겨울에는 5시만 되면 금방 어두워져서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스트리트 개념이고, 주택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린다. 따라서 구글 맵을 잘 이용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홈스테이에게 요청사항이 있다면 눈치보지 말고 초반에 요청했으면 좋겠다. 밴쿠버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안전하다. 다른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경험을 쌓고 많은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캐나다와 미국 국경	컬링
	
아쿠아리움	브릿지



게스타운



메트로타운